

## 하루하루 쌓아가기



황지민

- 안산 경안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수료
- 2013년 5급공채(행시) 사회복지직 합격

### I. 들어가는 글

안녕하세요, 황지민입니다. 재미있고 편하게 써보라고 하셔서 정말로 편하게 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합격하고서 이제 햇수로는 2년이 되어가니 힘들었던 고시기간에 대해서도 농담따먹기처럼 이야기할 여유가 생기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꼭 그런 날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가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 스트레스 해소방안 2. 겨울에는 1차에 올린 3. 답안에는 키워드와 구체성 4. 답안쓰기입니다. 다만 이것만 쓰기에는 장수가 많으니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도 같이 해볼게요.

우선 첫 해에는 여름방학에 신림동 가서 한달정도 행정법을 들었어요. 비록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적성에 아주 안 맞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먹었고, 2학기부터는 학교공부와 더불어 1차 위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겨울동안에도 1차만 봤구요. 이후 휴학하고서 학교고시반에서 예비순환부터 듣기 시작했죠. 2차는 당연히 떨어졌지만 1, 2순환을 계속 들었어요. 다만 이때에는 절박한 뭔가가 없었는지 설렁설렁 공부해서, 그 다음해에 3순환을 들을 때는 매일 10시간씩 복습하지 않으면 다음날에 수업을 이해조차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해도 해도 모르겠고 답안도 못 쓰겠어서 5월쯤부터는 아예 마음을 놓고 시간만 보내다가 2차를 끝냈습니다. 그 해의 여름방학에는 사람들과 1순환 강의를 다시 듣고 2학기에 학교를 다니느라 강의는 못 들었어도 답안스터디는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다음해 3순환을 다시 들을때에는 좀 이해도 되고 답안도 소शल갈게나마 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 해에 통과해서 신림에서 면접스터디를 구해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II. 생활습관

구체적인 공부방법보다는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목차를 먼저 쓸게요.

### 1. 마음가짐

고백하자면 지금 쓰다가 세 번쯤 지웠습니다. 절대로 이 방법이 옳다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공부기계로 생각하고 하루 14시간씩 공부하기도 한 반면에 어떤 선배는 수험기간에도 단정하게 차려입는 걸 빼놓지 않았고 또 저는 그냥 하루하루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셋 다 붙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떨어졌을 때의 B플랜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으면 못하고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다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공익을 위해 일한다던가 스스로 최고의 자리에 가고싶다는 큰 목적 뿐 아니라 그냥 이럴바엔 휴학을 왜 했나 하는 말이라던가 오늘치를 끝내면 오뎅을 먹을 수 있다는 사소한 거라도요. 저는 면접볼 때 앞머리가 없는 게 더 좋다는 말을 들어서 앞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애매한 앞머리길이로 못생겨지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억울해서라도 붙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이지 우스운 이유지만 그 당시에는 판짓을 하고 싶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펜을 들게 되더라고요. 스스로를 다그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포스트잇으로 푹푹 붙여놓길 추천드립니다.

### 2. 스트레스 해소

그렇게 마음을 잘 다잡아도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가 쌓이죠. 자기만의 해소법이 필요해요. 근처의 낮은 산이든 나무와 풀이 있는 곳을 삼십분정도 열심히 걸어다니기도 했고요 딱 천 원 들고 외상이 안 되는 PC방을 찾아가서 한시간만 게임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도 좋고 주말에 사람만나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공부시간만큼은 확실히 방해하지 않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생각해보세요.

### 3. 방해물

역시 최대의 방해물은 스마트폰이죠. 저도 폰게임하고 SNS하느라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20분 이상 게임하면 제 소중한 콜렉션을 갖다버린다고 굳게 다짐했고, 실제로 갖다 버린 이후 스마트폰은 부모님덕에 봉인하게 됐어요. 정말정말 본인의 의지력이 엄청난 사람이 아니면 일반폰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밖에도 게임이나 공부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꼭 방해요인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친구랑 멀어질까 우려스럽겠지만, 저도 오랜 수험생활을 끝내고 돌아갔더니 기다렸다며 단독 방에도 초대해주고 예전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마시고 수험에만 집중하세요.

### Ⅲ. 과목별 공부방법.

보통 겨울방학이 되면 1차 공부를 시작하죠. 1차를 볼고나서도 2차를 다 잊어버릴까봐 이 기간에도 2차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는데요, 정말 안정권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러지 마시라 하고싶어요. 2차 실력이 쌓여봤자 1차가 안 되면 어차피 안 됩니다. 올해 붙지 못할 실력이어도 1차를 합격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마음가짐과 공부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쳐보고 가장 공신력있는 점수를 받아보는 경험은 무엇보다 바꾸기 어려워요. 시작하실 때 1차를 확실히 공부해두시고, 매 시험때마다 적어도 두달은 1차에만 온전히 집중하시길 바라요.

#### 1. 제1차시험

언어논리 한다고 철학같은 책을 보는 건 시간낭비지만 논리책은 한 권 정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기출문제 위주로 문단을 읽고 글의 주제를 뽑아보는 건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꼭 글 안의 문장이 아니라 각 문단별로 그리고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문장을요. 기출 하나를 그렇게 보면 거의 세시간씩 걸리지만 실제 문제풀이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자료해석은 무엇보다 계산능력이 중요해요. 암산보다는 손으로, 약분보다는 그냥 나눠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낫습니다. 기존 강사들의 풀이법이나 스킬은 물론 유용하지만 중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으니 일단은 보시되 취사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황판단은 이 문제를 풀지 안 풀지 그 상황을 판단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이에 2분을 넘길 만한 문제는 그냥 제끼고 일단 시간내에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접근하세요. 전부 다 푸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니 풀었을 때의 시간과 확실한 점수확보여부를 고려해서요. 상황판단은 매번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잘 푸는 어느정도의 유형은 있으니 파악해두시는 것도 현장에서 덜 당황할 수 있는 방법이죠.

#### 2. 제2차시험

2차는 이론공부도 중요하지만 답안이 정말정말 중요해요. 강의를 듣다보면 수강생의 절반 정도는 답안을 내지 않죠. 이해합니다. 답안쓰는 시간은 자신이 모자라다는 걸 정면으로 부딪쳐야 하는 괴로운 시간이기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야만 실력이 생겨요. 조금 더 이론을 다져놓고 답안을 써야지 하면 안 됩니다. 답안은 그 자체로 연마해야 하는 스킬이고, 또 어차피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죠. 힘들겠지만 반드시 반드시 답안은 쓰세요.

##### (1) 경제학

경제학의 전략을 제시한다면 기본에 충실하시라 하고싶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대체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하나 싶으신 문제들이 좀 있는데, 보통 그런 문제들은 남들도 다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남들 다 푸는 문제는 나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 내서 좋은 점수를 확보해두면 까다로운 문제 하나쯤 못 풀어도 다른 과목들만 받쳐주면 합격할 수 있고, 운이 좋아서 그 문제도 풀어나면 좋은 거죠. 제가 합격했던 2013년의 일반직 경제학 3문제도 난생 처음보는 문제였고 그 다음해의 포트폴리오 문제도 다들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는 문제였지만, 어떻게든 아는 한도 내에서 식과 숫자를 조합해서 때려맞춰 합격한 사람들이 많은걸요. 기본적인 문제라면 정확하고 깔끔하게 풀 수 있게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두되,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손댈 수 있도록 최소한 3순환부터는 어떤 문제라도 책 들춰보지 않고 일단 풀어보세요.

## (2) 행정법

연수원 들어와서야 좀 제대로 알게 된 건데요, 법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이다라고요. 법조문이 명확하면 조문을 적용하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가 필요한 거죠.그러니 이 사안에 대해 관련법조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조문을 이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를 밝혀야 해요. (보통은 쟁점과 약에서 이것이 문제다, 라고 밝히고 다음목차에서 관련법조문 내용을 쓰겠죠. 행소법 제 12조의 원고적격이나 혐의의 소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학설은 간단한 논거 하나씩이면 충분하지만 판례는 그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문구를 반드시 써주셔야 해요. 그냥 이리이러한 판례다 하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판례문구를 정확히 써주는 게 가점이 높겠죠? 그리고 검토와 사안적용을 소홀히하는 분들도 있는데, 검토에서도 핵심적인 판단근거를 가급적 제시해주시구요 사안적용은 해당 법조문과 판례문구 등을 들어서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포섭해주세요.

한줄요약하면 행정법은 구체적으로 가 될 것 같네요. 법조문도, 판례도, 사안의 적용도. 모범답안이나 내 답안이나 분명히 필요한 내용들은 다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차이난다면 보통은 그런 구체적인 측면들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 (3) 사회복지학

학원 강의도 없는 사회복지학 과목은 공부하기에 좀 까다로운 과목이죠. 저도 혼자 공부하다가 신림동에서 스터디를 구해 사회복지와 사회학 과목만 답안스터디를 해봤는데 확실히 비전공생인 제 답안과 사회복지전공의 답안은 깊이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위기감을 느껴 학교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교수님께선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주제들을 들으시고는 미시사회복지도 없지는 않지만 복지정책같은 거시사회복지 쪽을 더 중점에 두라고 하셨고, 한 국사회복지학술발표회에도 가보라고 조언해주셨죠. 마침 그 해의 학술발표회가 제 학교에서 열려서 금,토 양일 등록해서 갔어요. 그곳에서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회복지의 트렌드와 깊은 이야기,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접하게되면서 제 답안에도 조금이나마 깊이가 생겼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5과목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걸 보

면 역시 책을 찾아보는 것보다 여력만 된다면 전공강의를 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과목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초반에 사회복지학개론 강의의 교양삼아서라도 들으시고, 수강신청을 못하면 청강이라도 하길 권해요. 실제 강의는 책에는 부족하기 쉬운 현실이나 최근 트렌드, 뭐가 더 중요한지 같은 부분들도 메꿔줄 수 있거든요. 그밖에 복지정책론 같은 이론서를 우선으로, 논문에서 좀 더 최신의 용어나 배경 등을 정리하면 좋구요 현재 빈곤율이나 노인빈곤율 같은 통계치를 알아두고 써먹으면 더 좋습니다.

#### (4) 사회학

사회학은 사회복지학만큼의 지식수준을 요구하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역사사회학이나 문화사회학 같은 각론에도 이것저것 손대봤는데 기출문제에 비해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 국내에서는 비판사회학회에서 나온 사회학 책 정도만 봤죠. 다른 사회복지직렬분에게 여쭙봐도 개론 수준으로 공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사회학 이론과 두 사회학 기본서들은 주제별로 꼭꼭 정리해서 나름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봤어요. 사회조사방법론도 종종 나오는 것 같아서 정리했구요. 기출문제는 다 풀어봤지만 문제 수가 많지 않아서 혼자 문제를 내보고 배점을 정해 그 분량만큼 써보는 걸 여러번 연습했죠. 혹시나 해서 신문을 종종 읽으면서 사회학적으로 의미있을 것 같은 신문기사는 스크랩해두긴 했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내가 알고있는 사회학 이론이나 논의들을 적용해보는 연습과 중요한 통계수치들을 따로 정리해둔 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네요.

#### (5)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직렬 선택과목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게 사회문제론이라고 생각해요. 첫 해에는 전공이기도 해서 행정학을 했었는데, 채점하시는 분이 일반행정과 같게 채점하셔서 점수가 썩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해에 바로 바꾸었죠. 사회문제론은 각론 교재 몇 권을 공부하긴 했지만 평소의 관심도 중요한 것 같아요. 2013년 2문에는 교재 어디에도 나올 일이 없는 화학적저세에 대한 논의가 나왔거든요. 예전부터 관심있게 보던 주제여서 자신있게 쓰고 나왔지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제대로 쓰지 못했을거예요.

특별히 출판사나 저자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도서관에서 사회문제론 책 몇 권을 빌려서 주제별로 문제의 배경, 주요 쟁점에 대한 개념과 찬반논쟁, 가능하면 대안까지 정리해서 공부했어요.

### 3. 제3차시험(면접시험)

2차를 통과하면 당장은 뭘 뜻이 기쁘지만 바로 면접에 대한 압박이 다가오죠. 이 때 여러 기관에서 면접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그전까지 면접에 대해서 잘 모르고있었다면 한번쯤 다녀오시는 것도 면접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3

차 면접은 일반적으로 2차 합격자 발표일부터 약 3,4주 이후 주말에 일반행정과 재경 및 기타직렬을 나누어서 치러집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같은 면접조가 된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집단토론시의 간단한 진행방향을 논의해요. 시간이 되면 인성면접용 사전조사서를 우선 작성하고, 약 70분간(지금은 시간이 줄었는지 모르겠네요)의 집단토론을 진행하죠.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나면 한 사람씩 개인PT + 인성면접을 진행하고 빨리 끝난 순서부터 집에 가게 됩니다.

### (1) 집단토론

명칭은 집단토론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정책결정논의에 가깝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주제와 한 장 정도의 자료를 주고 10분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서 각자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정해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각자의 근거를 함께 검토하고 옳은 방향을 결정하되, 양보한 측의 입장도 고려해서 적절한 대안을 도출하는 거죠.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토의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토의의 흐름을 정리하며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 (2) 개인 PT

어떤 주제에 대해 7~8장 정도의 신문기사나 언론보도, 통계 등의 자료를 주고 그를 토대로 30분간 1장의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는 평가과정입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배경, 문제점, 정책대안, 실행계획의 네 목차를 빠르게 뽑아내 구성하고 손으로 써야하는 만큼 정말 어렵고 보통 면접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말도 안되는 보고서가 나오지만, 3주 정도 연습하시면 어떤 주제를 주든지 기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학원가 등에서 주는 PT문제철을 토대로 많이들 연습하는데요, 주제를 미리 공부하고 쓰는 방식보단 일단 써보고 나중에 추가공부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연습하는 게 더 실전같겠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문제는 ODA주제였는데, 분명히 연습책에는 있었지만 저는 안 했던 주제여서 보자마자 음 망했군 했었는데요, 평소에도 모르고 연습하던 덕분인지 시간내에 작성도 다 하고 발표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3) 인성

인성면접은 보통 사전조사서에 쓰여진 질문과, 추가로 몇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장점이나 단점을 말해보라든지 혹은 봉사활동 경험같은 일반적인 질문부터, 어느정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문도 해요. 제 경우에는 사회복지직렬이었던 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왜 투자자가 아닌 일반지출로 책정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조금 어려운 질문도 있었고, 정말 곤란한 사람이 있는데 현행법상 돕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다만 딜레마질문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을 참조하면 생각보다 쉬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라도 합법성과 청렴성만은 무조건 지켜야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행인 것은, 비록 어려운 질문은 많았지만 압박면접이나 감정을 상하게하는 질문은 잘 안 하십니다. 물론 어떤분들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받아서 압박면접같았다고 토로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인성면접을 준비하다보면 나는 대체 그동안 뭘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대학와서 고시공부나 출장 하던 분들이니 당연할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경험했나 하는 것보다 그 경험에서 무엇을 느꼈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굉장히 혼한 공부방 봉사 활동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은 해결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가 많았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대답했어요. 왜 이 일을 하고싶었던 건지,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던지 전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시사랑에 들어가면 스태프위치배틀하는 란이 있었죠. 그 곳에 올라오는 시간들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12시간, 14시간.. 경제학의 모 강사님도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10시간은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전 7시간만 했습니다. 남들한테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만일 여러분이 하루에 열시간을 못 채워서 자괴감이 든다면 저도 붙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기왕 하실거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손에서 놓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올해는 안 되더라도 지금 빠르게 쌓아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쌓아놓은 실력에 정말 운이 좋으면 붙겠죠. 행시는 관운이 있어야만 한다고 할 만큼 운수도 좋아야 하는 시험이더라고요. 그 운이 올해에 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